

정례브리핑

2021.3.8(월) 10:30, 이종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통일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내일 3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해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민화협 임원과 회원단체 대의원들이 모여서 올해의 사업방향과 그 계획을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행사장 참석인원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취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최 측인 민화협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월 11일 목요일 오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연합훈련이 축소된 형태기는 한데 시작을 했잖아요. 통일부는 유연한 결정 이런 것을 바라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주신 대로 한미는 2021년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오늘 3월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코로나 상황, 도쿄올림픽,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전시작전권 환수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훈련이 방식과 규모 면에서 유연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끝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상응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